

“최대 표밭 호남 당심을 잡아라”...민주 당권주자들 ‘사활’

권리당원 30만여명...민주당 전체 40%

첫 일정 ‘호남행’...지역현안 해결사 자처

“달밭 당심(黨心)을 잡아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이 최대 표밭인 호남 공약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당대표 후보들은 후보등록과 함께, 첫 일정으로 호남행을 택한데 이어, 지

난 19일 광주TV 합동토론회, 20일 광주와 전북에서 열린 순회연설회에서 지역현안 해결사를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초반기선 잡기에 나선 이들이 호남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는 광주·전남·북이 당내 최대 표밭

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10%와 일반당원 5%의 비중이 반영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온라인과 ARS 투표를 진행하고 국민과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당 대표 당락에 결정적 키가 될 호남 권리당원수는 30여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 4만6000여명, 전남 20만여명, 전북 7만5000여명 등 32만여명으로 전체 권리당원 80만명 가운데 40%정도 된다. 일반당원을 포함한 전체 당원 400만 중에서는 140만명(35%)이 호남 당원이다.

다만, 이들 권리당원 중 5·2임시전 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당규에 따라 줄어들 수 는 있다.

민주당 당규에는 ‘권리행사 시행

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투표권 행사를 하는 권리당원이 줄어들 수 있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호남은 여전히 당내 최대 표밭인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수도권 호남 출신 당원까지 합치면 민주당 당대표 결정은 호남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따라 각 후보들은 호남 표심 잡기에 총 동원령을 내렸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최대 표밭인 호남 표심을 잡는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권주자들의 호남에 올인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유영민(왼쪽부터) 대통령비서실장, 박형준 부산시장, 문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희 정무수석.

文대통령, 오세훈·박형준 인사

“저도 당선 직후 취임” 공감 화법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특유의 공감 화법으로 첫 인사를 건넸다. 별도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직후 업무에 집중해야 했던 공통점을 매개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마련한 오세훈·박형준 시장 초청 오찬 간담회 전 사전 환담 자리에서 “날씨가 좋네요. 두 분 반갑습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취임하셨습니다”면서 “저도 당선되고 곧바로 취임했다”고 덧붙혔다. 인수위 없이 당선 직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공통점을 화두로 인사를 건넨 것이다. 문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다.

영접을 나온 이철희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의 인사를 들은 뒤 “(두 분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늘로 가십시오”라며 두 시장을 오찬 장소인 상춘재로 안내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는 임기말 국정 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조를 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초청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김종인의 제3지대·국민의힘 불가론...윤석열에 구애?

비대위 퇴임 직후부터 ‘독설’ 야권 재편, 제3지대 성공 일축 당권주자 주호영과도 날 세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에서 물러난 다음 한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거의 매일 특유의 독설을 쏟아내며 야권을 흔들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제3지대 신당을 구상 중인 금태섭 전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최근에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작당’이란 표현까지 쓰며 비대위에서 물러난 지 한

달도 안 돼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김 전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야권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노린 사전포석이거나 차기 당대표가 유력한 주 대행을 견제하고 국민의힘 당내 주류싸움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애’로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대권행보를 놓고 속고 들어간 윤 전 총장에게 김 전 위원장은 제3지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면 ‘백조는 오리가 돼 버린다’는 비유로 들어 국민의힘 입당을 사실상 만류했다.

김 전 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가 추구하는 제3지대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당에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 야권 일각에선 김 전 위원장이 대권을 구상하고 있는 윤 전 총장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과 지금까지 한 번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윤 전 총장 쪽에서 먼저 만남을 제안하면 긍정적으로 수락할 뜻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대권후 보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

면 박근혜·문재인에 이어 김 전 위원장 본인이 다시 ‘김메이커’로 나설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관건은 윤 전 총장의 선택이다.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별의 순간’ 등을 언급하며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은 요지부동이다.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이 김 전 위원장의 이런 속내를 꿰뚫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만약 ‘정치 초보인 윤 전 총장이 김 전 위원장과 대선 정국에서 한 배를 타더라도 김 전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기 보다는 ‘역할’을 제한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대권을 목표로 함께 노를 저더라도 방향타는 윤 전 총장 본인이 잡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시스

與, ‘중구난방’ 부동산 대책에 경고장

대출규제 완화 등 대책 쏟아져...부동산특위 중심 논의 창구 통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격적인 규제 수정에 들어간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내에서 중구난방식으로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해 ‘원보이스’ 기조를 강조하며 기강잡기에 나섰다.

대출규제와 세 부담 완화, 공시지가 속도조절론 등이 쏟아져 나오고 정부 정책과 엇박자 우려도 제기되자 상황 정리에 나선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우리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당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데 대해 알고 있다”며 “당에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부동산특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특위의 논의 결과는 의총에 보고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의종을 통해서 당의 입장을 결정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민심 악화를 확인한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수정을 놓고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중구난방식 처방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주문한 것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